정상기의 「東國地圖」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 『동국여지승람』과 『해동지도』 계통의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

이 기 봉**

1. 머리말
2. 정상기의 『동국지도』 발문과 『해동지도』 계통의 관련성
3. 압록강의 유로
4. 두만강의 유로
5. 기타
6. 끝내며

초록: 본 논문은 조선전기의 지도 계통에 비해 정상기(1678~1752)의 〈동국지도〉에 나타난 정확성의 혁신적 개선이 어떤 자료에 입각하여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정상기가 주요 자료로 삼아 〈동국지도〉를 제작했다고 언급된 『동국여지승람』(1531)뿐만 아니라 1730년대 이전에 제작된 『해동지도』 계통의 그림식 지도의 위치 정보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두 자료가 보완적으로 사용된 사례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 함경도 명천의 해안선, 전라도 순천의 白也島를 들었다. 둘째, 『해동지도』 계통의 그림식 지도를 참조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사례로 제주도 남쪽 해안에 잘못 표시된 灣(또는 호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지만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에는 나오는 많은 지명을 들었다.

주요어: 정상기, 동국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동지도, 지도

---

* 본 논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鄭尙驥의 〈東國地圖〉 — 原本系統의 筆寫本 —』 解說·索引, 9~55면에 수록된 『정상기의 『東國地圖』 해설』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상대학교

1. 머리말

農圃子 鄭尙驥(1678~1752)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지는『農圃問答』을 비롯하여 당대의 사회 현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여러 저서를 저술한 실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김정호와 함께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지도 제작자로 알려져 왔다.[1] 그는 정확한 조선지도의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1463년(세조 9)에 제작된 鄭陟(1390~1475)과 梁誠之(1415~1482)의『東國地圖』이후 또 하나의 획기를 이룬 조선전도와 도별도를 제작한 인물이다.

지도 제작자로서 이렇게까지 정상기를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정척과 양성지의 지도에서 나타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부정확함을 현대지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2.5m 정도에 이를 정도로 더 크고 자세하며 훨씬 많은 정보를 수록한 지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의 조선전도와 도별도는 더 크고 자세해져 19세기 후반기에 김정호의『대동여지도』로 집대성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정상기의『동국지도』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정확한 지도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18세기 전반기까지 유행하던 정척과 양성지의『동국지도』계통을 서서히 대체하기 시작하여 18세기 말과 19세기에 들어서면 관과 민간에서 가장 많이 필사된 지도였기 때문이다.[2] 나아가 필사본을 넘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된『道里圖表』속의 목판본 조선전도와 여러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목판본 조선전도인『해좌전도』로까지 변형되었다.[3] 특히『해좌전도』는 남아 있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3개의 판본이 있음이 밝혀져[4] 민

1) 오상학, 1994, "鄭尙驥의『東國地圖』에 關한 硏究 — 製作過程과 寫本들의 系譜를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면.

2) 현존하는 정상기의『동국지도』계통의 지도와 소장처 및 구성 등은 오상학, 1994, 앞의 논문, 38면에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지도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만 필자는 조사를 행하지 못했으며, 앞의 논문에서는 크기를 줄여 제작한 지도들이 조사되어 있지 않다.

3) 정상기의『동국지도』계통 중 조선전도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사용되었는지는 서울大學校奎章閣에서 2004년에 영인 간행한 奎章閣 所藏 朝鮮全圖의 지도 영인본과 解說 42~59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양윤정, 2005, 木版本 朝鮮全圖『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보경・양윤정, 2006, 木版本 朝鮮全圖『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간에서 이 지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정상기의『동국지도』는 정인보에 의해 최초로 학계에 소개된 이후, 1980년대까지 이병도・이상태・전상운・김경성・형기주・원경렬・이찬 등의 한국 학계를 비롯하여 Thrower N.J and Kim Y.I 등의 외국 학자들도 연구하는 등 상당히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끌어왔다. 그러나 정상기의 지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심층적인 연구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5] 다양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상기의 여러『동국지도』를 접하기가 쉽지 않아 종합적 측면에서 지도의 제작배경과 제작과정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1994년에 이루어진 오상학의 연구는 정상기의『동국지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하나의 획기를 그었다고 볼 수 있다.[6] 본 연구는 오상학의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기의 지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작방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상기의『동국지도』에는 2,000개 이상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줄기와 물줄기 및 해안선에 대한 위치 정보도 아주 풍부하다. 만약 정상기의『동국지도』전체가 어떻게 제작되게 되었는지를 알려 한다면 이러한 위치 정보 하나하나가 어떤 자료에 입각하여, 그리고 어떤 고민 속에 선택되어 지도에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작업은 몇 년이나 걸리는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렵다. 또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와 같은 제작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도 위에 표현된 모든 위치 정보에 대해 제작 과정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기의『동국지도』가 그 이전 지도에 비해 확실히 정확해진 부분이라 알려진 사례와 다른 글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 그밖에 제작 과정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좋은 사례 몇 개를 분석하여

---

5) 오상학, 1994, 앞의 논문, 4~7면. 이 논문에서 검토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경성, 1977, "韓國古地圖에 關한 硏究",『駱山地理』第4號.
원경렬, 1991,『大東輿地圖의 硏究』成地文化社.
이 찬, 1991,『韓國의 古地圖』汎友社.
이병도, 1960, "鄭尙驥와 東國地圖",『書誌』第1卷 第1號.
이상태, 1991,『朝鮮時代 地圖硏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상운, 1988,『韓國科學技術史 제2판, 正音社.
형기주, 1963, "古地圖에 관한 硏究資料",『地理學』1號.
Thrower, N.J. and Kim, Y.I., 1967, "Dong-Kook-Yu-Ji-Do: A Recently Discovered Manuscript of a Map of Korea", *Imago Mundi*, vol. 21.

6) 오상학, 1994, 앞의 논문.

제작 과정의 대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정상기의 『동국지도』 발문과 『해동지도』 계통의 관련성

우선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제작하게 된 배경과 제작 방법 및 필사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적어놓은 발문을 모두 전제해 보면 다음과 같다.[7)]

> 우리나라의 지도 중에서 세상에 유행하는 것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인데, 필사본(模本)이나 목판본(印本)을 막론하고 모두 종이의 크기(闊狹)와 모양(方圓)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산천과 거리가 모두 서로 틀리게 되어 있다. 10여리의 가까운 곳이 간혹 수백리보다 멀게 그려져 있고, 수백리의 먼 곳이 간혹 10여리보다 가깝게 그려져 있다. 동서남북의 방향에 이르면 간혹 그 위치가 바뀌어 있어 그 지도를 살펴 사방을 돌아다니고자 해도 근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어두운 밤길을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이것을 괴롭게 여겨 드디어 이 지도를 만들었다. 무릇 산천의 험함과 평탄함,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尺을 단위로 삼아 100리를 1척으로 하고 10리를 1촌으로 하였다. 한양(京師)으로부터 그것을 헤아려 사방에 이르면 충분히 전체의 지도가 하나로 통하는 것이 된다. 팔도의 형태, 길이와 모양을 확연히 알도록 하여 병풍처럼 편리하게 첩자(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니, 다른 지도들이 종이의 크기와 모양에 국한되어 서로 붙이고자 하여도 네 모퉁이의 경계가 결국 맞지 않는 것과 다르다. 다만 각 도를 나누되 팔도가 각각 하나를 이루게 해야 마땅하지만 함경도와 같은 경우는 드넓어서 한폭에 모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남북 2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경기도(圻內)와 충청도(湖西) 같은 곳은(땅의) 폭이 넓지 않아 함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도를 합해 그려 8첩의 수를 갖추게 하였다. 또 평안도(關西)의 동북 모퉁이는 매우 넓어서 해당 지도에 모두 그릴 수 없으니 이에 古茂昌 廢厚州 등의 땅은 함경남도의 왼쪽에 떼어 붙였다. 또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 홍의도, 가가도와 같이 멀리 떨어진 바다의 섬은 그 거리를 알수 없어 단지 소재한 방향을 분명히 하여 해당 지도의 끝 부분에 붙여 그려넣었다. 또 각 도가 나누어지는 곳에 산줄기와 물줄기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두 번 그렸으니 이것 역시 진실로 그러한 형세

---

7) 심사평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동국대전도』와 이병도 박사의 소장본이 『동국지도』 원형에 가장 가까운 지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점은 정상기가 分圖뿐만 아니라 全圖도 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필자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상기의 발문은 전도가 아니라 분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국지도』 원형에 가장 가까운 지도를 전도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다. 간혹 합하여 그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름지기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없앨 줄 알아야 전체적인 형태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그 尺을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 평평한 곳은 1척으로써 100리를 헤아리가, 그 산골짜기와 물구비가 우회하거나 평평하지 않은 곳은 간혹 1척으로써 120~130리를 헤아려 정하는 것은 이치의 형세 상 그렇게 된다. 만약 채색을 하고자 한다면 경기는 純黃으로, 충청도는 紅白으로, 전라도는 純紅으로, 경상도는 靑紅으로, 황해도는 純白으로, 강원도는 純靑으로, 평안도는 白黑으로, 함경도는 純黑으로 한다. 산은 綠色으로, 하천은 靑色으로 한다. 홍선으로 수로와 육로의 대로를 긋고, 황선으로(도별) 사방 경계선을 구별한다. 붉은 점으로 烽燧를 표시하고, 성가취 모양에 흰색을 남겨두어 산성을 표시한다. 감영이나 군현은(성이 있으면) 바깥쪽에 백선을 칠하고, 역과 진보는 둘레를 치되 靑과 黃을 넣어 살짝 구별한다. 이것이 모두 지도를 그리는 범례이니 이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8]

정상기의『동국지도』발문의 내용을 보면 정상기가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이용되던 지도를 참고하며 돌아다닐 경우 나타나는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에서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동하면서 기존의 지도를 이용할 때에 큰 불편함이 있었을까? 조선후기에 가장 유행한 동람도 계통의 소형 목판본 지도책에는 서울로부터 각 군현까지의 거리 정보, 특히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 거리 정보가 자세하다. 여기에 각 지역을 이동할 때 중요한 찰방역을 비롯한 역의 정보가 자세한 편이다. 따라서 만약 군현과 진영 및

8) 我國地圖之行於世者 不知其數 而無論其模本印本 皆從紙面之濶狹方圓而爲之 故山川道里 盡爲相左 十餘里之近者 或遠於數百里 數百里之遠者 或近於十餘里 以至東西南北 或易其位 若按其圖 而欲往遊於四方 則無一可據 與冥行無異矣 予以是病焉 遂作此圖 凡山川之險易 道里之遠近 以尺爲量 以百里爲一尺 以十里爲一寸 自京師度之 以至四方 洽爲全圖一通 使八路之形 長短方圓之體 昭然分晳 以便屛障之成帖 非若他本之局於紙面 雖欲附帖 而四下絃界 終不可附合者也 第分各道 宜其八路之各成其一 而至如咸鏡道壤地廣遠 不可以一幅容載 故分其南北二張 其如圻內與湖西 幅員不濶 足可與並模 故以其道作爲附道 以備八帖之數 且關西之東北一隅 最爲廣漠 不能盡收於本幅 乃以古茂昌廢厚州等地 割付於咸鏡南道之左 又其海島之絶遠如濟州鬱陵黑山紅衣可佳者 不能知其里數 而只分其所在之方位 而附畵於元幅之末 又其各道分域處有嶺脊江水者 不得不重模而疊寫 是亦固然之勢 或有欲合模者 須知其模其一而去其一 則可不失全形矣 其用尺之法 若當平夷地 則量百里用一尺 其於山峽水曲迂回不平處 則或以一尺量定一百二三十里 理勢然也 若其施采色 則京圻純黃 湖西紅白 湖南純紅 嶺南則靑紅 海西純白 關東純靑 關西白黑 關北純黑 山以綠 水以靑 紅線畵水陸大路 黃線別左右分界 而點紅以記烽燧 粉堞而留白 以表山城 營邑(有城) 外施白線 驛堡城(成의 잘못인듯)圈 乍分靑黃 此皆作圖之凡例 覽者詳之(규장각 소장『八道地圖』[古4709-23])

진보 등을 오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동람도 계통의 소형 목판본 지도책, 특히 위치 정보가 하나의 책이나 앞뒤에 따로 제작된 지도책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을 돌아다닐 때 참고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어두운 밤길을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만약 동람도 계통의 소형 목판본 지도책의 부정확함 때문만이라면 그것보다 더 자세한 조선전기 이회의 『팔도지도』나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계통의 필사본을 구해서 이용하면 된다. 나아가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지도보다 더 정확하게 그렸다는 윤영과 황엽의 지도를 구해서 이용해도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들 지도들은 정상기가 살았던 적성과 한양에만 국한시켜 볼 때 거리와 방향이 많이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도들이 가장 잘못 그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상기는 자신의 발자취가 미친 곳은 수백리에 불과하고 듣고 본 것도 또한 한 고을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스스로 기록해 놓기도 했기 때문에[9]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실제로 가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은 없다.

결국 정상기는 한양과 자신이 살고 있었던 적성 사이에, 또는 그보다 약간 더 넓은 범위에서 실제로 지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려면 앞서 살펴본 어떤 지도보다도 더 자세하고 커야 한다. 그러면 이런 지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정상기의 『동국지도』 발문에 기록된 "무릇 산천의 험함과 평탄함이나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기준척으로서 헤아림의 기준을 삼아 100리를 1척으로 하고 10리를 1촌으로 하니 서울로부터 그것을 헤아려 사방에 이르면 충분히 전체의 지도가 하나로 통하는 것이 된다. … (중략) … 그 尺을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 평평한 곳이라면 백리를 헤아리는데 1척을 사용하고, 그 산이 험하고 물이 굽이쳐 우회하거나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라면 간혹 1척으로써 120~130리를 헤아려 정하면 되니 형세를 이해함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내용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앞의 내용은 정상기의 지도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百里尺에 대한 이야기이다. 반면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모든 지역에 축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9) 『農圃問答』 祛幣瘼/오상학, 1994, 앞의 논문, 27면.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용자들이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100리를 1척으로, 10리를 1촌으로 해놓은 기준척을 제시해 놓았다. 나아가 지도 위의 평면상 거리와 실제 도로상의 거리가 다른 점 때문에 이동하면서 이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도로가 우회하거나 평탄하지 않은 곳은 1척이 120~130리를 의미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그가『동국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평탄하지 않은 곳과 평탄한 곳, 도로가 우회하거나 곧은 곳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평탄하지 않거나 도로가 우회하는 곳은 동일한 거리 정보라 하더라도 120~130리를 지도 위에 100리로 표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정상기는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보했던 것일까?

도로의 거리와 방향의 정보는 기본적으로『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 오상학도 지적했듯이 1481년(성종 12)에 처음으로 편찬되고 이후 몇 번의 증수과정을 거쳐 1531년(중종 26)에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전국 군현에 배포된 후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던『동국여지승람』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동국여지승람』은 위치 정보가 빈약한 조선전기의 다른 지리지들에 비해 위치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각 군현의 첫머리가 인근 군현 사방 경계와 서울까지의 거리였으며, 일정한 위치에 있는 지명에는 예외없이 거리와 방향의 정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거리 정보는 지형의 험함과 도로의 굴곡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지도 위의 평면 거리를 환산하기 어렵다. 산천의 정보를 잘 배열하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도로가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상기의『동국지도』에는 김정호의『동여도』나『대동여지도』처럼 도로를 직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나가는 루트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기의『동국지도』에 표현된 도로의 루트, 나아가 지형과 도로의 굴곡이 반영된 거리 정보를 지도 위의 평면 거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지도나 지리지 이외에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자료가 없었다면 정상기의『동국지도』만큼의 자세한 도로 모습이나 발문에 수록된 '평탄하지 않은 곳의 120~130리를 평탄한 곳의 100리와 동일하게 표현했다'는 내용은 나올 수 없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정상기의『동국지도』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상기가 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존재했으며 현재도 전해지고 있는『해

동지도』 계통의 지도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상학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정상기가 『동국여지승람』 이외에 16세기 이후 편찬되는 邑誌, 이전 또는 당대에 제작된 여러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연구하지 않았다.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존재했지만 오상학의 연구가 이루어질 때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자료가 바로 규장각에서 1995년에 간행한 『해동지도』(古大 4709-41)이다.[10] 『해동지도』에는 당시에 필요로 했던 대부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군현지도이다. 비록 그림지도 형식으로 그려져 있어 동일한 축척과 방향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자세하게 표시된 도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에서 그려 올린 지도를 중앙에서 재편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별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어떤 원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기가 과연 관에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해동지도』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11] 그러나 『해동지도』 계통이 현재 상당히 많이 남아

---

10) 서울大學校奎章閣, 1995, 『海東地圖』 上・下, 解說・索引.

11)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제작할 당시에는 『해동지도』 계통이 민간에서 쉽게 구득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그러면서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로 가면서 군현지도책의 필사가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어야 이를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 받았다. 필자도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해동지도』 계통이 민간에서 얼마나 필사되어 유통되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필사되었든 아니든 어떻게 구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앞의 심사평 역시 구체적인 지도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동국여지승람』에는 수록되지 않은 지명이 상당히 많이 나오며, 그런 지명의 대다수가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글 5장 (3)의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지명'에 『동국여지승람』에는 없지만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에 나오는 몇 개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본문에 적었듯이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이는 정상기가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 정보를 참조하지 않았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것은 민간에서 많이 필사되었든 아니든, 구입 방법이 어떠했든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 정보를 구득하여 보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필자는 이런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가 민간에서 필사된 정도와 정상기가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평에서도 궁금하다고 했듯이 앞으로 새로운 사료의 발굴, 『농포문답』에 대한 철저한 검토, 정상기와 가장 절친했던 이익의 문집에 대한 검토, 정상기 후손들의 사료를 발굴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의 경우『해동지도』계통으로『경주도회[좌통지도]』(古4709-26),『안동도회[좌통지도]』(古4709-25),『호서지도』(奎12155)의 일부 지도,『地乘』(奎15423),『輿地圖』(古4790-68),『廣輿圖』(古4790-58) 등이 남아 있다.[12] 뒤의 3개 지도책은 지도의 크기가 앞의 지도책이나 첩들보다 훨씬 작아 실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지승』과『여지도』의 경우 색감이나 기타 다른 요소들을 통해 볼 때 관이 아닌 민간에서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계통의 지도책은 다른 기관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여지도』6책과『各邑地圖』, 日本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되고 있는『輿地便覽』등이 있다.[13] 이들 지도들 역시 색감이나 기타 다른 요소들을 통해 볼 때 관이 아닌 민간에서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도들이다.

규장각 소장의『해동지도』가 간행되어 유명해지면서 이 지도첩이 최초의 원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지도첩이 초기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 아님을 같은 계통의 다른 지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의『호서지도』에 수록된 그림식 지도들을 보면 읍치의 건물이『해동지도』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배치 상황까지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로도 색을 통해 3단계로 구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해동지도』보다 자세하다. 따라서『호서지도』의 군현지도를 통해『해동지도』의 군현지도를 그릴 수는 있으나 그 반대는 거의 불가능하다.『해동지도』계통이면서 규장각에 소장된『여지도』와『지승』의 경우 읍치의 건물이『해동지도』보다 훨씬 많아『해동지도』를 바탕으로 필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의 2개 지도책의 읍치 건물 수는『호서지도』의 것과 거의 유사하여『해동지도』보다 내용적으로 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건물의 배치 관계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 더 조악한 필사본이라 할 수 있다.『광여도』의 경우 도로가 생략되었지만 읍치의 건물 수라는 측면에서는『해동지도』보다 훨씬 많아 원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12)『해동지도』를 비롯하여 이들 지도는 모두 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니 비교하여 참조하기 바란다. 이들 지도책이나 첩을『해동지도』계열이라고 불렀지만 일부 다른 계통의 것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해동지도』경기도 지도의 京都와 江都 및 松都는 다른 지도책이나 지도첩과 다르며,『광여도』의 경상도 군현 지도는 '비변사 인방안지도'로 알려진 1리 방안의『영남지도』(규12154) 계통의 것이다.

13) 釜山大學校 釜山地理硏究所, 2004, 釜山・蔚山・慶尙南道 市郡別 古地圖 1.

그러면 『해동지도』 계통의 최초 원본은 언제 제작되었을까?[14] 양보경은 『해동지도』에 수록된 군현지도의 내용이 1730년대 후반~1740년대 초까지 군현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15] 그 근거로 1735년 평안도 희천의 구인령의 축성, 1737년 경상도 거창의 褒忠祠 건립, 1740년 경기도 德積島鎭의 설치와 僉使 배치, 1741년 경기도 永宗浦鎭의 水軍僉使로의 승격 등을 들었다. 그러나 앞의 예들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평안도의 희천군 지도에 蚯蚓城嶺이 나오는데, 1531년에 활자본으로 인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희천군 산천조에도 이미 구인성령이라 기록되어 있어 이를 1735년의 축성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1737년 경상도 거창의 포충사 건립 사실은 주기에는 있지만 지도에는 없으며, 1740년 경기도 덕적도진의 설치와 첨사 배치도 남양부와 인천부 지도의 덕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지도의 제작 연대를 보여주는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영종진의 지도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만으로 1741년 경기도 영종포진의 수군첨사로의 승격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영종포진은 1681년에 만호진에서 수군방영으로 승격되는데, 경기도 지도의 주기에 水軍防禦使 1명이 영종(진)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동지도』의 군현지도에는 지도와 주기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양보경이 지적한 것처럼 지도가 먼저 제작(또는 필사)되고 주기가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16] 양보경은 군현지도에 반영된 내용의 시기를 앞과 같이 추정하면서도 1728년에서 1735년까지 혁파되었던 경상도의 安陰縣이 도지도와 함양군 지도에 '革安陰'이라 기록된 것에 주목하기도 했다.[17] 본 글에서는 안음현의 내용을 통해 『해동지도』의 제작(또는 필사) 시기를 1728년에서 1735년 사이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해동지도』 계통의 최초 원본은 늦어도 1728년에서 1735년

14) 심사평에서 『해동지도』 계통의 초기본이 언제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필자도 인정하며, 앞으로 『해동지도』 자체뿐만 아니라 최초 원본의 제작시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글에서는 심사평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동지도』의 군현지도 제작 시기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동지도』뿐만 아니라 같은 계통의 다른 지도책에 수록된 지명의 시기 변화를 바탕으로 최초 원본의 제작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15) 양보경, 1995, "郡縣地圖의 발달과 『海東地圖』", 『海東地圖』 解說・索引, 서울 大學校奎章閣, 72면.

16) 양보경, 1995, 앞의 논문, 70면.

17) 양보경, 1995, 앞의 논문, 72면.

에 제작되었을 것이며, 그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글에서는『해동지도』계통의 제작 시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후속 연구로 미루고 논의의 전개를 위해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고자 한다.

각 필사본에 수록된 지명은 필사 당시의 상황에 맞게 교정된 것도 있고 교정되지 않은 것도 있다. 최초 원본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지명들이다. 첫째, 1719년(숙종 45) 所江鎭에 황해도의 水營이 설치되면서 옹진현이 옹진도호부로 승격된다. 그런데『지승』과『광여도』의 황해도 옹진현 지도를 보면 '소강진'이 표시되어 있고, 옹진이 도호부가 아니라 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해동지도』와『여지도』에는 '소강진'에서 '진'이 생략되었고, 옹진현이 아니라 옹진부로 기록되었다. 水營의 설치는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알려질 수밖에 없으며, 앞의 것에서 뒤의 것으로 변화될 수는 있지만 뒤의 것에서 앞의 것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지승』의 충청도 수영・면천군・직산현・청양현・예산현 지도와『여지도』의 충청도 면천군・직산현・홍산현・청양현・예산현・수영 지도에 洪州가 洪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홍주는 1661년(현종 2)과 1710년(숙종 36)에 홍양현으로 강등된다. 강등되었다 복구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의 洪陽 기록은 1710년의 강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최초 원본은 1728~1735년의 시기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있다.

이들『해동지도』계통의 지도책은 대부분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종이 위에 넓이와 모양이 다른 군현과 도를 그려넣었다. 따라서『동국지도』발문의 앞쪽에서 필사본이나 목판본을 막론하고 모두 종이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만들어 거리가 달라진다고 지적한 기존 지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동서남북의 방향에 이르면 틀린 곳이 너무 많아 지도를 살펴 사방을 돌아다니고자 해도 근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기존 지도에 대한 지적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도별도의 경우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종이 위에 그렸기 때문에 서로 이어붙여 이용하기도 어려워 발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해동지도』계통의 지도책에 포함된 상당수의 지도에는 도로의 루트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도로가 지나가는 지형의 험함과 굴곡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로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위치의 거리와 방향 정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해동지도』

『호서지도』

『여지도』

『광여도』

〈그림 1〉『해동지도』 계통의 충청도 영춘현 지도

3. 압록강의 유로

조선전기에 제작된 이회의 『팔도지도』와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에서 압록강의 유로가 극히 부정확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회·정척·양성지 등 전문 지도 제작자에 의해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압록강 유로의 부정확성은 당시 이 지역에 대해 조선이 확보하고 있었던 위치 정보의 수준을 보여준다. 『동국여지승람』은 앞의 2개 지도 이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두 지도는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위치 정보를 지도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

왼쪽부터: 용천-의주, 구성-삭주-창성, 운산-이산, 희천-강계-고자성 -고우예-조명간보, 함흥-삼수, 북청-갑산-혜산진

〈그림 2〉 정상기의『동국지도』계통[18]과 현대지도에 표현된 압록강의 유로

었다. 17세기 이후 제작된 이이명의『요계관방도』나 윤영의 것으로 추정되는『서북피아양계일람지도』등의 관방지도에서 조선전기 계통의 지도에 비해 압록강의 유로가 개선된 것이 분명하지만 현대지도와 비교하여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7세기 이후의 관방지도는『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이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리지에 수록된 위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두 지도가『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압록강 유로에 대한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도 이런 오류를 범했다면 이 지리지에 수록된 위치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했다면 전문 지도 제작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동국여지승람』의 위치 정보가 갖고 있는 이해상의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상기의『동국지도』에는 압록강의 유로가 현대지도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정상기가 그로부터 얼마 앞서지 않은 사람들까지 부정확하게 그렸던 압록강의 유로를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단 당시에 민간에 많이 퍼져 있었던『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위치 정보를 통해 압록강의 유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8)『朝鮮全圖』(251.0×134.0cm), 18세기 후기(추정), 이찬, 1991, 앞의 책, 98~100면.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위치 정보를 통해 압록강의 대략적인 유로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남쪽의 군현으로부터 압록강변의 군현이나 진보까지의 남북 거리가 추적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압록강변의 군현이나 진보로 선택한 것은 상류로부터 함경도의 혜산진-삼수, 평안도의 폐사군 최북단에 가까운 조명간보-이산-창성-의주이다. 그리고 이런 지점까지 남북의 거리 정보가 있는 루트의 출발점 군현을 평안도의 용천-구성-운산-희천과 함경도의 함흥-북청으로 잡았다.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계통에서 앞의 남쪽 6개 군현을 동서로 잇는 부분까지는 현대지도에 가깝게 그렸으며,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앞의 남쪽 6개 군현은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지도에서 동서의 일직선상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 압록강변의 군현이나 진보까지의 거리를 통해 대략적인 압록강의 유로를 알 수 있다.[19]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험준한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동국여지승람』의 거리 정보에 나타난 편차가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1〉은 『동국여지승람』에 남쪽의 6개 군현에서 압록강변의 군현이나 진보까지 남북으로 기록된 위치 정보를 모두 연결하여 더해본 것이다. 그 결과 압록강

〈표 1〉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압록강 유로의 위치 정보

구간	용천-의주	구성-삭주-창성	운산-이산	희천-강계-상토보-고자성-고우예-조명간보	함흥-삼수	북청-갑산-혜산진
총 거리	79	174	334	671+?	554	415
부분 거리	19+60	29+94+18+23	81+253	108+270+100+120+?+50+23	210+344	168+132+115

참고 1: 부분 거리는 각 군현의 중심지에서 다른 군현의 경계까지의 거리이며, 진보의 경우 군현의 중심지에서 진보까지의 거리이다.

참고 2: 고자성에서 상토보까지의 거리 정보가 방향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남쪽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고자성에서 고우예까지의 거리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 '?'로 처리하였다.

19) 현대지도에 입각해 볼 때 용천・구성・운산・함흥이, 희천・북청이 거의 같은 위도에 있고 뒤의 2개 군현은 앞의 6개 군현보다 약간 더 북쪽에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현대지도와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당시 확보한 위치 정보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경향성에서 현대지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 제작의 기술이 상당 수준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 유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점은 폐사군 지역의 조명간보였고, 그 다음은 조명간보의 동쪽에 있던 삼수와 혜산진이었으며, 조명간보의 서쪽에 있던 이산-창성-의주의 순서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압록강의 유로가 현대지도처럼 혜산진에서 삼수를 거쳐 폐사군의 최북단에 가까운 조명간보까지 서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조명간보에서 서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이산-창성-의주를 거쳐 서해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정상기의『동국지도』에도 압록강의 전체적인 유로가 바로 동일하게 그려져 있어『동국여지승람』의 위치 정보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위치 정보는 상대적인 것일 뿐 지형과 도로의 굴곡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지도 위에는 약간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20]

이렇게 혜산진 서쪽의 압록강 유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동국여지승람』의 거리 정보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동국여지승람』에는 압록강의 상류인 혜산강이 백두산 남쪽에서 흘러온다는 기록만 있을 뿐 혜산진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정상기의『동국지도』에는 백두산에서 발원한 압록강이 혜산진까지 남류하는 모습이 현대지도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 또한 혜산진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실제에 가깝게 갑산부 읍치에서 혜산진까지의 거리보다 약 2배 정도 먼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상기의『동국지도』에서 나타난 이 부분의 압록강 유로는『동국여지승람』이 아닌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그렸음이 분명하다. 이이명의『요계관방지도』나 윤영의 작품으로 추정되는『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에는 백두산에서 혜산진까지의 압록강 유로가 현대지도와 완전히 다르게 그려져 있어 이것을 참조하여 그릴 수도 없다. 여기서 참조되는 것이 앞서 살펴보았던『해동지도』계통의 갑산부 지도이다.

〈그림 3〉의 갑산부 지도에는 백두산 남쪽에서 발원한 압록강이 동쪽에서 흘러오는 몇몇 물줄기를 합해 南南東流하여 혜산진에 이르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규장각에 소장된『해동지도』계통의 갑산부 지도의 주기에는〈표 2〉와 같이 혜산진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250리 안팎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갑산에

20) 정상기의『동국지도』계통에서 나타난 폐사군 지역은 현대지도와 비교해 보면 실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오차는 높낮이와 굴곡이 반영된 당시의 거리 정보를 평면 위의 지도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해동지도』의 갑산부 지도

〈표 2〉『해동지도』 계통의 갑산부 지도에 나타난 혜산진-백두산의 거리 정보

	혜산진	검천거리	자개수	임연수	허항령	백두산	합계
해동지도		45	45	45	?	120	255+?
여지도		45	45	45	5	120	260
지승	없음						
광여도		45	45	45	5	105	245

참고: 표에 나타난 거리는 앞쪽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이다.

서 혜산진까지의 거리인 115리의 2배 약간 넘는 수치로서 이를 바탕으로 그리면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비슷해질 수 있다.[21)]

지금까지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해동지도』 계통의 갑산부 지도를 통해 압록강의 대략적인 유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상기의 『동

21) 『해동지도』 갑산부 지도의 주기에는 혜산에서 백두산까지 720리쯤이라는 기록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록 바로 앞의 기록에 무산까지의 통과 지점과 거리가 기록되어 있어 무산을 혜산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지도』가『동국여지승람』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했으며, 거기에 없는 자료는『해동지도』계통의 자료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압록강의 유로를 더 세세히 살펴본다면 두 자료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자료만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 다른 자료를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압록강의 전체적인 유로 경향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의 기회를 기다리도록 한다.[22)]

4. 두만강의 유로

조선전기에 제작된 정척과 양성지의『동국지도』에는 두만강의 유로가 현대 지도에 비해 극히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이명의『요계관방지도』와 윤영의 것으로 추정되는『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에는 조선전기 지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현대지도에 비하면 부정확한 측면이 많다. 반면에 정상기의『동국지도』에는 현대지도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가깝게 그려져 있어 어떤 자료를 참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은『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각 군현의 사방 경계까지의 거리 중 길주에서 경흥까지의 거리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을 보면 군현 경계까지의 방향에 대한 기록이 2개 나오는 것도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군현의 위치와 거리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한 기록이 2개 나오는 경우 어느 것이 군현 중심지 사이의 도로 거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보조 자료가

22) 심사평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동국대전도』와 이병도 소장본과 같은 전도에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만주지역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Gari Ledyard의 주장(1994, “Cartography in Korea”,『THE HISTORY OF CARTOGRAPHY』VOLUME TWO, BOOK TWO, 310쪽)처럼 중국의『황여전람도』제작 이후 들여온 지리정보가 중요한 자료가 되어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필자는『황여전람도』에 표현된 압록강과 두만강의 정보량이 정상기의『동국지도』에 수록된 정보량보다 훨씬 적고 소략하며 정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압록강과 두만강 유로에 관한 한 심사평에서 제기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중요 자료는 아니더라도 참고 자료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아래부터: 길주-명천-경성-부령-회령-종성-온성-경원-경흥/ 왼쪽: 무산

〈그림 4〉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23]과 현대지도에 표현된 두만강 유로

〈표 3〉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함경북도 군현 사이의 위치 정보

길주-명천		명천-경성		경성-부령		부령-회령	
동-서	10+44=54	북-서	7+145=152	북-남	48+62+110	북-남	38+68=106
북-서	32+44=76	북-남	7+142=149				
회령-종성		종성-온성		온성-경원		경원-경흥	
북-남	30+87=117	북-서	29+37=66	동-서	34+19=53	동-서	96+36
		동-서	27+37+64				

참고: 군현 사이의 거리는 군현 중심지와 다른 군현 경계까지의 거리이다.

없는 한 양자택일의 방법밖에 있을 수가 없으며, 잘못 선택할 경우 지도의 정확성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구체적인 도로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 때 참고되는 것이 바로 『해동지도』 계열의 군현지도 중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해동지도』 길주목 지도를 보면 읍치에서 명천부의 경계로 연결된 도로가 2개 나오며, 명천부 지도에도 읍치에서 길주목의 경계로 연결된 도로가 2개 나온다.[24]

23) 『朝鮮全圖』(251.0×134.0cm), 18세기 후기(추정), 이찬, 1991, 앞의 책, 98~100면.

두 지도를 서로 연결해 보면 길주목의 읍치에서 명천부의 읍치로 연결된 도로가 동과 북 중에서 북쪽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동국여지승람』의 사방 경계의 거리 기록과 비교해 보면 북-서의 76리 기록을 두 군현 읍치 사이의 거리로 이해할 수 있다. 경성부의 지도를 보면 경성에서 명천에 이르는 길이 2개 나오는데, 읍치를 기준으로 할 때 남쪽으로 뻗은 길이 명천부의 읍치와 연결된 도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천-경성에 대한『동국여지승람』의 2가지 거리 기록 중 북-남의 149리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게 된다.

종성-온성의 경우도『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는 북-서와 동-서 2개의 거리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해동지도』의 종성부와 온성부 지도를 검토해 보면 두 읍치 사이의 거리는 북-서의 66리 기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길주로부터 온성까지 읍치의 거리와 방향은 길주 읍치로부터 동북쪽 76리(명천) -북쪽 149리(경성)-북쪽 110리(부령)-북쪽 106리(회령)-북쪽 117리(종성)-동북쪽 66리(온성)의 순서가 된다. 실제로 읍치 사이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상기의『동국지도』에는 앞서의 경향과 거의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면 회령-종성-온성 지역의 두만강 유로는 정상기의『동국지도』처럼 거의 정북을 향하다가 동북 방향으로 약간 틀어지게 된다.[25] 이러한 두만강의 유로는 조선 전기 계통의 지도나 17~8세기 이이명의『요계관방지도』와 윤영의 것으로 추정되는『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등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혁신적인 변화이다.

그러면 온성과 경원-경흥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는 두만강의 유로에 대해 살펴보자.『표 3』을 보면 온성-경원과 경원-경흥 모두 동서의 방향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정상기의『동국지도』에 나타나는 온성-경흥의 두만강 유로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 참조되는 것이 역시『해동지도』계통의 3개 군현 지도이다. 온성부 지도를 보면 읍치에서 경원부 경계까지의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24) 앞으로의 설명에 많은 지도가 나오는데, 지면 관계 상 모두 제시할 수 없다. 규장각에서 1995년에 영인간행한『해동지도』上・下나 http://e-kyujanggak.snu.ac.kr/ 사이트의 자료검색→원문자료검색→고지도를 참조하면서 본 연구의 내용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25) 정상기의『동국지도』에서 온성 부근의 두만강 유로가 유원진과 미전진에서 상당히 굴곡지게 그려져 있다. 그런데『동국여지승람』이나 그 이전의 어떤 지도에서도 이렇게 굴곡진 유로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해동지도』계통의 온성부 지도를 보면 이 부분의 두만강 유로가 정상기의『동국지도』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 상호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데, 정동쪽이 아니라 동남쪽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동국여지승람』에 동쪽으로 기록된 것이 실제로는 동남쪽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경원부 지도를 보면 읍치 서쪽 19리에 온성의 경계가 있다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두 읍치 사이의 도로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북쪽 훈융진 부근에서 온성의 읍치와 연결되는 도로가 나타나고 있어 두만강의 유로는 온성에서 동남쪽을 향하다가 동남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원-경흥의 동서 방향도 『해동지도』에 나타난 두 군현의 지도를 참조해 보면 실제로는 동남 방향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면 실제로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나타난 두만강의 유로와 거의 같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백두산에서 회령에 이르는 두만강의 유로를 살펴보도록 한다(이 부분에서는 현대지도의 두만강 유로를 비교해 가며 본 연구를 읽어주길 바란다). 이 지역에 대한 정보는 『동국여지승람』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다른 자료를 통해 그릴 수밖에 없다. 다른 자료로는 역시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책을 언급할 수 있다. 이 계통의 무산부와 회령부의 지도 주기에는 두 군현의 경계가 무산부에서 북쪽으로 150리, 회령부에서 서쪽으로 50리로 나온다. 이러한 방향 정보를 앞서 언급한 길주-명천과 종성-온성 등의 사례와 비슷하게 이해하면 무산부 읍치의 동북방향에 회령부의 읍치가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두만강의 유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령부의 경계가 무산부의 동쪽 75리에 있다는 주기의 내용과 지도에 표현된 무산부 읍치에서 부령부 경계까지의 도로를 연결시켜 이해하면 회령부의 경계 방향은 정북쪽이 아니더라도 동북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표현되었다면 현대지도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에 가장 가까운 지도가 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무산부-회령부의 읍치와 두만강의 유로가 거의 동서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해동지도』 계통의 무산부와 회령부의 지도 내용을 사실로 이해했다면 현대지도에 가깝게 그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큰 원인으로 백두산의 위치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현대지도의 입장에서 볼 때 백두산은 회령부의 읍치보다 훨씬 남쪽의 부령부 읍치와 거의 동일한 위도에 있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백두산이 회령부의 읍치와 거의 동일한 위도에 있어 실제보다 상당히 북쪽에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폐사군 지역의 최북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은 실제로는 부령부의 읍치와 백두산

보다도 더 남쪽에 있어야 함에도 백두산과 거의 동일선상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오류는 산악지역에서 측정된 도로의 거리 정보를 평면의 지도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백두산의 위치는 무산부로부터가 아니라 북청부-갑산부-혜산진의 거리 정보로부터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백두산 동쪽의 무산부 지역과 두만강 유로는 이미 정해진 백두산의 위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동국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정상기도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백두산의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무산부와 회령부 지도에서 두 읍치가 동북 방향에 있다는 정보를 동서로 바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회령부의 읍치보다 더 남쪽에 있던 부령부의 읍치와 동일한 위도의 무산부 읍치가 훨씬 북쪽에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무산부 읍치를 실제보다 북쪽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북류하던 두만강의 유로까지 동서로 흐르는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다. 무산부의 읍치와 두만강의 유로를 실제보다 북쪽으로 배치한 결과 남쪽에서 흘러드는 지류들의 길이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남쪽에서 발원하여 무산부 동쪽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하천은 현재의 성천수로 정상기의『동국지도』에 표현된 박하천과 서북천에 비해 훨씬 짧은 하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의 읍치가 북쪽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훨씬 길게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5. 기타

1) 함경도 명천부의 해안선

정상기의『동국지도』에는 함경도 명천부의 해안선이 동쪽의 바다로 불쑥 튀어져 나가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현대지도에는 이 부분이 거의 남북으로 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기의『동국지도』는 실제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정상기의『동국지도』원본 계통이나 수정본 계통 모두에게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김정호의『청구도』에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김정호의『동여도』와『대동여지도』에 이르러서야 현대지도에 가깝게 수정되는데, 이런 오류의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정상기가『동국지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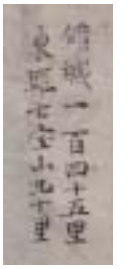
제작하면서 어떤 자료에 입각하여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를 작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에는 명천의 읍치 거의 정동쪽 지역에 七寶山과 金莊寺 및 馬乳山의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의 명천현 산천조에는 칠보산이 동쪽 56리에 있다고 되어 있어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마유산은 남쪽 164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지도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현대지도에 입각해 보면 칠보산과 마유산 모두 명천의 읍치 동남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기운 방향에 있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칠보산보다는 마유산이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는 그 반대로 표현하였다. 명천부의 해안선이 현대지도에 입각해 볼 때 완벽하게 왜곡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치 정보 자체의 애매함과 그것에 대한 선택의 오류 때문이다. 그러면 정상기는 상반되는 두 위치 정보 중에서 왜 칠보산을 위주로 마유산을 배치하여 실제를 왜곡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참조되는 것이 역시 『해동지도』 계통의 명천부 지도이다. 금장사가 『동국여지승람』에는 나오지 않지만 『해동지도』 계통의 명천부 지도에는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할만한다. 그리고 명천부 지도에는 읍치-칠보산-마유산이 거의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지도의 입장에서 보아도 명천부의 읍치-칠보산-마유산은 동남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거의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어 『해동지도』 계통의 명천부 지도가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남쪽이나 남쪽에 치우친 방향으로 잡았다면 이 지역의 해안선은 현대지도에 가깝게 그려져 있을 것이며, 김정호의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해동지도』 계통의 명천부 지도 주기에 칠보산이 동쪽으로 90리에 있다는 내용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 정상기는 바로 이 기록을 중요하게 여겨 『동국여지승람』의 마유산 기록을 부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정상기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전혀 보지 않고 『해동지도』 계통의 명천부 지도 자료만으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을까? 그렇게 볼 수 없다. 『해동지도』 계통의 명천부 지도에서 읍치-칠보산의 거리가 90리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칠보산-마유산의 거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해안선이 바다쪽으로 불쑥 튀어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도 않았다. 따라서 정상기는

『해동지도』



『八道地圖』(古4709-23)

〈그림 5〉『해동지도』와 정상기의『동국지도』의 함경도 명천 부분

1. 길주 읍치 2. 명천 읍치 3. 칠보산 4. 마유산

〈그림 6〉현대지도의 함경도 명천 부분

칠보산의 거리와 나머지 지명의 방향에서는『해동지도』계통의 명천부 지도를 신뢰하면서 마유산의 거리에 대한 기록은『동국여지승람』의 것을 참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바로 정상기의『동국지도』와 같이 명천 지역의 해안선을 그릴 수 있게 된다.

2) 제주도 정의현의 서쪽 만(또는 호수)

오상학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 계통을 알려주는 지표 중의 하나로 제주도 정의현의 서쪽에 실제로는 없는데 표시된 만이나 호수를 들고 있다. 원래 만으로 표시되었다가 후대에 호수로 변화된 것도 있는데, 초기수정본 계통부터 이러한 오류가 시정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오류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후대의 수정본에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동국여지승람』의 정의현 산천조에는 大池(동 15리, 둘레 23리), 箇乃池(동 15리, 둘레 25리), 酉只浦(동 20리, 둘레 25리), 正毛淵(서 64리), 藻淵(서 70리) 등 호수나 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온다. 현재도 제주도의 남쪽에는 호수나 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그려진 제주도만한 크기에 표현될 수 있는 만이나 호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기가 『동국지도』의 제주도 남쪽에 만을 그려넣은 것은 어떤 자료에 입각했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물론 『동국여지승람』의 정의현 산천조를 보고 그려넣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랬다면 굳이 하나만 그려넣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해동지도』 계통의 전라도 제주 지도에 현재의 서귀포 지역에 만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나와 주목된다. 『해동지도』에는 2장의 『제주삼현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한 장에 현재의 서귀포 부근에 성곽 모습의 '旧西皈'와 타원형의 경계에 황색으로 칠해진 '三屯下場'이 표시되어 있다. 같은 계통의 『지승』 『제주목』 지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해동지도』에 비해 '旧西皈'와 '三屯下場'이란 문구가 생략되어 바다가 만입된 듯한 느낌이 들게 그려져 있다. 같은 계통의 『여지도』 『제주목』 지도도 '삼둔하장'이 표시된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와 동일한 구도이지만 지명이 대부분 생략되어 구서귀의 성곽모습이 마치 작은 연못처럼, 삼둔하장의 경계가 마치 바다의 만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그려져 있다. 『광여도』에 수록된 『제주목』 지도 역시 앞의 2개 지도와 동일한 구도이며, '구서귀'와 '삼둔하장'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은 『여지도』의 것과 동일하고, 『여지도』와 약간 다르지만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그려져 있다.

『해동지도』 계통의 제주 지도에 수록된 서귀포 부근의 '삼둔하장'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만으로 표시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해동지도』

〈그림 7〉『八道地圖』(古4709-23)의 제주도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

『광여도』의 제주목

『여지도』의 제주목 지도 전체(오른쪽)와 부분(왼쪽-남북 바꿈)

〈그림 8〉『해동지도』 계통의 제주도 서귀포 부근 묘사

의 경우 조금만 자세히 보더라도 바다가 만입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여지도』나 『광여도』의 것은 바다가 만입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현재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3개의 지도책을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여지도』나 『광여도』의 경우를 통해 볼 때 필사되는 과정에서 바다가 만입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게 변형된 것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명이나 문장이 사라질 경우 『동국여지승람』의 정의현 산천조에 호수나 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록과 결합된다면 바다가 만입된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후대의 수정본 계열에서 이 부분이 수정되는 것은 『해동지도』처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들을 검토하면서였을 것이다.

3)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지명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산・하천・군현명・진보・역원 등 다양한 지명이 수록되어 있고, 상당수가 『동국여지승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에서 찾을 수 없는 지명이 꽤 수록되어 있어 다른 자료를 참조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명들의 다수는 작은 단위의 것이기 때문에 조선전기 계통의 지도나 이이명의 『요계관방지도』 및 윤영의 지도로 추정되는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 등의 크기에서는 담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명들을 살펴본다면 정상기가 어떠한 자료를 참조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지명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통해 대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경기도 수원의 북쪽에 기록된 葛山과 진위 부근에 기록된 靑好란 지명은 앞서 언급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에 지속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명은 『해동지도』 계통의 경기도 군현 지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갈산은 『해동지도』 계통의 광주와 과천 지도에 갈산주막으로, 청호 역시 같은 계통의 진위 지도에 청호주막으로 표시되어 있어 정상기가 이 계통의 지도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교하에 기록된 金尺과 장단에 표시된 基谷 역시 『동국여지승람』에는 없는 것으로 『해동지도』 계통의 교하와 장단 지도에 각각 金尺浦津과 基谷으로 표시되어 있다. 수원의 동남쪽에 표시된 海倉・陽城倉・稷山倉 등의 지명도 『동국여지승람』에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해동지도』 계통의 수원 지도에는 동일한 위치에 표시

되어 있다.

정상기의『동국지도』평안도의 영원 부분에는 倉이라는 지명이 보통 5개 이상 표시되어 있다.『동국여지승람』에는 창고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다른 자료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해동지도』계통의 평안도 영원 지도에는 정상기의『동국지도』처럼 상당히 많은 倉이 표시되어 있어 상호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도에는 창마다 寧遠郡과 동일 권역에 있던 寧城鎭에의 소속 여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군과 진의 소속 여부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창을 자세하게 그려넣은 것이다. 정상기의『동국지도』필사본 중 두만강과 압록강의 만주와 연해주 방면에 상당히 많은 지명이 수록된 것이 있는데,『동국여지승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해동지도』계통의 지도에는 정상기의『동국지도』에 나오는 이 지역의 지명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상기의『동국지도』온성-경원-경흥의 두만강 건너편에 나오는 지명 중『해동지도』계통의 온성, 경원, 경흥의 지도에 나오지 않는 지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지명이 일치하는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상기가『해동지도』계통의 지도를 참조하여『동국지도』를 제작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몇몇 사례의 지명만 살펴보았지만『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정상기의『동국지도』에 수록된 지명의 대부분이『해동지도』계통의 지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부 그렇지 않은 지명이 간혹 발견되고 있어『해동지도』계통의 지도만을 참조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지명을『해동지도』계통의 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기가『동국지도』를 제작하면서『동국여지승람』뿐만 아니라『해동지도』계통의 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지명의 위치 정보를 주요 자료 중의 하나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하다.

7. 끝내며

본 연구에서는 오상학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존중하면서 정상기의『동국지도』가 어떤 자료에 입각하여 어떻게 제작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8세기에 존재했으면서 현존하는 자료로서 가장 자세한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던 자료는 오상학이 지적한 것처럼 『동국여지승람』이었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의 거리와 방향에 대한 위치 정보에는 몇 가지 중대한 자료 상의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도의 정확성에서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오차 가능성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을 나열하면 첫째, 위치 정보의 방향이 동서남북 4개 정도밖에 없다는 점 둘째, 거리 정보에는 지형의 높낮이나 도로의 굴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셋째,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측정된 도로의 경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해안선이나 하천 및 산줄기의 흐름을 고립된 위치로 표현된 거리와 방향의 정보만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치 정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존재했으면서 아직 상호 연관관계에 대해 주목받지 못했던 『해동지도』 계통의 자료에 주목하게 되었다.

『해동지도』 계통의 최초본은 1730년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의 군현이 포함된 지도책으로 현재 규장각에만도 4개가, 다른 기관에도 3개가 다양한 크기와 내용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군현이 남아 있는 자료로 규장각에만 3개가 남아 있으며, 앞으로의 조사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될 수 있다.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책 속에 들어 있는 지도들은 대부분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보다는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그림지도(회화식지도)의 형식이다. 따라서 이 자료의 위치 정보만으로 정확한 지도를 그리는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도로의 자세함 등을 통해 볼 때 지방에서 그려올린 것에 바탕을 두고 제작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동국여지승람』의 위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오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몇몇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위치 정보와 『해동지도』 계통에 표현된 위치 정보를 주요 자료로 삼아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동지도』 계통이 비록 그림지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세한 도로의 경로와 산천의 흐름에 대한 묘사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위치 정보의 오차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앞의 2개 자료만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정지으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상기의 『동국지도』만큼 자세하고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지의 위치 정보만으로는 어려우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해동지도』계통의 지도에 수록된 각종 위치 정보가 활용되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26)

참고문헌

『慶州都會[左通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26).
『廣輿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58).
『安東都會[左通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25).
『輿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68).
『地乘≫(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5423).
『八道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23]).
『湖西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2155).
『新增東國輿地勝覽』(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1982).
김경성, 1977,『韓國古地圖에 關한 硏究』,『駱山地理』第4號.
釜山大學校 釜山地理硏究所, 2004,『釜山・蔚山・慶尙南道 市郡別 古地圖』1.
서울大學校奎章閣, 1995,『海東地圖』上・下, 解說・索引.
서울大學校奎章閣, 2004, 奎章閣 所藏 朝鮮全圖 영인본・解說.
양보경, 2005,『郡縣地圖의 발달과『海東地圖』,『海東地圖』解說・索引, 서울大學校奎章閣.
양보경・양윤정, 2006,『木版本 朝鮮全圖『海左全圖』의 유형 연구』,『문화역사지리』제18권 제1호.
양윤정, 2005,『木版本 朝鮮全圖『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심사평에서 관방지도 및 다른 지도들을 참고하지 않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해동지도』계열 이외에 다양한 지도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필자는『해동지도』계열의 지도가 중요 자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단정지을 수 있는 풍부한 연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상기의『동국지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지도 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오상학, 1994,『鄭尙驥의〈東國地圖〉에 關한 硏究 — 製作過程과 寫本들의 系譜를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경렬, 1991,『大東輿地圖의 硏究』, 成地文化社.

이 찬, 1991,『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이병도, 1960,『鄭尙驥와 東國地圖』,『書誌』 第1卷 第1號.

이상태, 1991,『朝鮮時代 地圖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상운, 1988,『韓國科學技術史』 제2판, 正音社.

형기주, 1963,『古地圖에 관한 硏究資料』,『地理學』 1號.

Gari Ledyard, 1994, "Cartography in Korea", *The Histort of Cartography*, Volume Two, Book Two.

Thrower, N.J. and Kim, Y.I., 1967, "Dong-Kook-Yu-Ji-Do: A Recently Discovered Manuscript of a Map of Korea", *Imago Mundi*, vol. 21.

Abstract

A Study on Jeong, Sang-gi's Process of Creating *Dong-guk Jido:* Focusing on the Location Informations of *Dongguk Yeoji Seungram* and *Haedong Jido*

Lee, Ki-Bong*

This paper examines through a few examples on what grounds Jeong Sang-gi's innovative improvement of *Dongguk Jido* was made possible compare to the maps of early Joseon Dynasty. It focuses not only on *Dongguk Yeoji Seungram* which was mentioned in existing studies to have been used as a main reference for *Dongguk Jido*, but also on the location informations of illustrated maps such as *Haedong Jido* made before 1730's. First of all, for examples of complementarily using two materials, the waterways of Aprok River and Duman River, the shoreline of Myeongcheon, Hamgyeongdo, Baekyado in Suncheon, Jeonrado are presented. Second of all, for examples of maps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express without the reference of pictorial maps in the sorts of *Haedong Jido*, it suggests the miswritten gulf (or lake) of the Southern coast of Jeju Island, and several geographical designations that are mentioned in *Haedong Jido* but not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Keywords: Jeong, Sang-gi, *Dongguk Jido,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Haedong Jido*, map

* Chief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ikibong@empal.com)